

# 이차전지

## GM Investor Day 후기

이차전지/석유화학

Analyst 노우호

02. 6454-4867

wooho.rho@meritz.co.kr

전일(10/8) GM은 Investor Day를 개최하며 재무, EV 사업, 배터리 전략, 자율주행/소프트웨어 분야에 성과 및 가이드언스를 제시함. 투자자들에게 EV분야 안정적 성장전략을 강조 중

### [EV]

- 생산량: 24년 3개분기 EV 총 누적 생산량은 12만대로 record-high. 연간 20만대의 생산량 목표치 달성에 on-track
- 점유율: 북미 EV 시장 GM의 판매 기준 점유율 증가 중. 1Q24 6.5% > 2Q24 7.1% > 3Q24 9.8%
- 수익성: EV 사업에 고정비 감소 중으로 연간 수익성 개선의 발판 마련 중. 고정비는 2023년 -10억달러, 2024년 -10억달러 추가 절감되며 향후 2년간 EV부문 총 20~40억달러 규모의 비용 개선 효과 예상
- EV 라인업: 총 10개 EV 차종. 2024년 하반기 이후 Cadillac 에스컬레이드 IQ, Optiq, Mystic, Chevrolet 볼트, GMC 시에라 등 출시되며 각 Segment별 EV 판매전략 구축

### [배터리]

- 파트너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와의 협업과 폼팩터 이원화 시도(파우치 및 각형)
- 배터리 내재화(In-house) 연구개발 대상으로 5개의 Chemistry 제시. 니켈-카드뮴 납축 전지(NiCd), 니켈-메탈 하이드라이드(NiMH), 리튬이온(Li-Ion), NCM, LFP
- 현재까지 GM이 파트너사를 통해 적용한 배터리 Chemistry는 Ultium Cells 기반의 NCM 배터리. GM은 향후 LFP 적용으로 배터리 이원화 전략을 제시한 점은 기존 파트너사 LG에너지솔루션에 고무적. (1) 하이니켈 기반 삼원계는 490 miles 이상 차종, (2) LFP 배터리는 350 miles 차종에 탑재 예정
- LFP 배터리는 2025년 하반기 출시될 보급형 EV Chevrolet 볼트에 탑재. 그 이후 상위 Segment 모델들에 추가 적용 가능성 높아져
- GM이 언급한 'Ultium' 사용 중단 계획은 JV Ultium Cells가 아닌, EV 아키텍처, 부품 등에 Ultium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

**[국내 배터리 산업 영향]**

- GM의 친환경차 전략은 Tesla 등 Top-tier 경쟁사 대비 속도/규모 관점에서 뒤쳐져있음. 그럼에도 chasm의 전기차 수요 정체의 변명보다 EV 생태계 강화의 사업 의지를 천명
- GM은 북미 경쟁사 Ford 등과 달리 전방시장 수요 정체 국면에 대안(하이브리드/수소)을 선택하기보다, 투자자들에게 EV의 친환경차 생산 전략 의지를 재확인시켜 준 행사
- 국내 LG에너지솔루션(Ultium Cells JV 1~2기 가동)과 삼성SDI(27년 양산 계획)과 파트너십. 포스코퓨처엠/LG화학은 Ultium Cells향 양극재 공급계약 완료한 사례. GM은 국내 배터리 원/소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전개 중
- GM의 EV 성장전략은 기존 배터리 파트너사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및 원소재/부품 공급망 기업들에 Q 성장의 기회 요인으로 반영. 긍정적 방향성 재확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